



유럽 선거 이후 재정위기 심화 우려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프랑스 정권교체¹⁾와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 실패²⁾로 재정긴축 후퇴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 짐.

- 유럽 재정긴축이 후퇴할 움직임을 보이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유로화를 기피하고 안전자산인 달러 및 엔화로 이동하면서 유로화 가치는 하락함.
 - 5월 7일 현재 달러 대비 유로화는 1.2954달러로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심리적 지지선(1.3달러) 아래로 하락함.
- 국채시장에서는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함.
 - 5월 7일 현재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는 5월 7일 0.861%까지 떨어져 2010년 10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.

■ 그러나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재정긴축 전면 반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랑스 정권교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.

- 주요 외신들은 프랑스 신정부의 성장 공약은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이나 신정부가 당초 공약대로 신재정협약³⁾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봄.
 - Financial Times는 프랑스 신정부가 신재정협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보다 독일의 양보를 얻어내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함.
- 프랑스 신정부 측근들은 재정긴축을 추구하는 신재정협약을 전면 수정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나, 성장부문을 협약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함.

1) 5월 6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는 51.62% 지지를 얻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(48.38%)을 누르고 새 대통령에 당선됨.
2) 5월 6일 그리스 총선 결과 정치권이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함.
3) 유로존 각국이 강도 높은 긴축을 실시하여 재정난을 해결한다는 게 주된 내용인 신재정협약은 2011년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체결됨.

- 5월 9일 유럽 주요 증시는 전날 급락한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회복함.
 - 오전 9시 현재 영국 FTSE100 지수는 전일 대비 0.13% 상승했고, 프랑스 CAC40 지수는 0.52% 상승했으며, DAX30 지수는 0.74% 상승함.

■ 다만, 그리스 정국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재정위기 심화가 우려됨.

- 5월 7일 그리스 제1당인 신민당의 연정 구성 실패로 정부 구성 기회를 얻게 된 제2당 좌파연합이 재정 긴축안 폐지, 민간은행 국유화, 모라토리엄 선언 등 선동 정책을 폼에 따라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가시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고조됨.
- 그러나 5월 9일 제2당 좌파연합마저 연정구성에 실패하면서 그리스는 6월 재선거 실시가 유력해짐.
 - 제1당 신민당과 제3당 사회당은 좌파연합의 주장대로 긴축이행을 철회할 경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국가 부도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제2당의 연정구성에 반대함.
- 블룸버그는 6월에 총선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의석 분배로는 연정 구성이 쉽지 않다고 전망함.⁴⁾

(Wall Street Times 등 5/7, 5/8, 5/9)

4) 5월 6일 총선 결과 신민주당의 득표율은 18.9%, 사회당은 13.2%로 양당을 합한 지지율이 50%를 넘지 못함.